

이재명, 외연 확대로 대세 굳히기 다음주 매머드급 '싱크탱크' 발족

지역별·여성·청년층 정책 발굴 전직 장관·교수 등 1천명 참여 이한주·이종석 공동대표 맡아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 이재명 경기지사 측이 다음주 대규모 싱크탱크 '세상을 바꾸는 정책포럼 2022' (가칭)를 발족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지사 측은 최근 네거티브 중단을 선언한 뒤 지역별 공약 발굴 등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이 지사 측 관계자는 11일 "오는 18일 이재명 후보의 정책을 아우르는 싱크탱크의 발대식을 온라인으로 개최할 것"이라고 전했다.

포럼에는 정치, 외교·안보, 경제·산업, 사회 등

각 분야의 전직 장관과 교수 등 전문가가 1천명 넘게 이름을 올릴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당내 경선 때부터 이 지사의 정책공약을 총괄해온 이한주 경기연구원장, 노무현 정부 출신인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공동대표를 맡을 것으로 전해졌다.

기본소득 분야 권위자인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이정우 경북대 명예교수, 박순성 전 민주정책연구원장도 주요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포럼은 정부 각 부처에 상응하는 20여개 분과위원회와 주요 정책별 TF, 연구단 등을 포함해 총 40여개의 정책생산 단위를 구성, 운영할 방침이다.

이 지사가 일찌감치 매머드급 싱크탱크를 띄우며 세를 과시하는 배경에는 당내 경선에서 일찌감치 대세론을 굳히고 외연을 확대하겠다는 판단이

자리잡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일부 정책 성과는 계승하면서도, 새로운 토대에서의 정책철학을 제시함으로써 4기 민주정권을 이끌 '신주류'로서의 안정감과 존재감을 전달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포럼은 이 지사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는 여성, 20·30 청년층, 중도 성향 지지자들을 겨냥한 정책 발굴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캠프는 이날 육군 대장 출신인 김병주의원을 영입하기로 하는 등 원내 세력 확장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캠프 관계자는 "싱크탱크 출범과 조직 확대를 통해 이재명 후보가 '본선 경쟁력'이 있는 가장 준비된 후보라는 점이 자연스럽게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지지율 정체에... 친문의원들 '이낙연행' 주춤

이낙연 측 "시기·형식 조율 중" 친문 합류 자진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에 합류할 듯했던 민주당 친문 의원들이 주춤하는 형국이다. 이 전 대표의 지지율이 정체 국면을 이어가자 친문 의원들이 관망세로 돌아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지지율이 무섭게 치고 올라오던 지난달 중순만 해도 민주당의 4.0을 비롯한 친문 그룹 소속 의원들은 7월 말을 결별 시점으로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선 초반 집단행동에 대한 부담, 정세권 전 총리와와의 관계, 대외적 명분 부족 등으로 합류 시점은 차일피일 밀렸다.

한 친문 의원은 11일 "몇몇은 다음 주라도 지사

회견을 하자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내부적으로 의견 통일이 안 돼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며 "이달 내로 행동을 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라고 했다.

당 안팎에서는 어느 캠프에도 속하지 않은 중간 지대 친문 의원이 적게는 10명, 많게는 30명에 달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홍영표 의원을 비롯해 김종민·신동근 의원 등이 대표적이다.

원내 친문 구심점으로 불리는 홍 의원은 특정 후보를 공개 지지하더라도 본 경선 막바지거나 움직임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 관계자는 "현재 남아있는 친문 의원들은 반(反)이재명계라 아무래도 2위 주자인 이낙연 후보

에 마음이 쏠린 게 사실일 것"이라며 "합류 형식은 공개 지지 선언 보다는 느슨한 정책 연대 방식이 검토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낙연 캠프에서는 늦어도 이달 안으로 친문계 의원들의 합류를 바라는 눈치다. 이를 통해 개혁성을 부각하고 지지율 재상승의 모멘텀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지율이 10%대 중반 박스권 흐름을 이어간다면 오히려 이들의 합류가 더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캠프 핵심 관계자는 "친문 의원들과 시기나 형식 등을 조율하고 있고 일부는 정책 공약 등에서 이미 도움을 주고 있다"면서 "그쪽 사정도 있지만 8월 20~25일쯤에는 행동하지 않을까 한다"고 기대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민주, '文부친 언급' 최재형 원색 비난

"극우 아스팔트·거짓말 제조기"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조부의 친일 의혹 해명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부친을 거론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게 비난을 퍼부었다.

강병원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에서 "최소한의 인간적인 도리마저 포기한 것"이라며 "치졸한 작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맹공했다.

최 전 원장을 '극우 아스팔트 부대', '무뢰한', '거짓말 제조기'라고 원색 비난하며 "준비가 안 돼

공부하겠다는 사람이 정치권의 악습과 구태는 어떻게 빨리 흡수하는지 놀랐다"고 공격했다.

전혜숙 최고위원은 "문제는 (최 전 원장) 조부와 부친의 행적이 아니다"라며 "조부와 부친의 애국 행적을 강조하고 그것을 이용한 거짓말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신동근 의원은 페이스북에 재차 글을 올려 "준비의 바닥을 드러내더니 이제 인격의 바닥까지 드러냈다"며 "최소한의 염치가 있다면 그럴 수 없는 노릇"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윤석열도 심각하지만, 최재형이 더 심

각하다"며 "최 전 원장의 사고는 윤 전 총장의 작은 정부보다 더 심각한 최소 정부, 무정부주의에 가깝다"고 직격했다.

이낙연 캠프의 배재정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의 삶을 모두 책임지겠다는 게 바로 북한 시스템'이라는 최 전 원장의 발언과 관련, "아연실색할 일"이라며 "웬만한 현안은 준비가 안 돼 있지만 국민을 책임질 수 없다는 자세만은 철저히 준비된 모양"이라고 비교했다.

/연합뉴스

인터넷 광주일보

www.kwangju.co.kr

국민의힘 토론회 공동전선 짜는 추격자들

경쟁 주자들 일제히 참석 의사 윤, 준비 부족 노출 우려 딜레마

국민의힘 대선 경선 레이스의 출발 총성이 울리기도 전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견제 기류가 커지고 있다.

윤 전 총장 캠프가 18일로 예정된 경선준비위원회 주관 합동 토론회 참석에 부정적 반응을 내비친 것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

윤 전 총장이 입당 전후로 계속되는 이준석 대표와의 주도권 싸움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도가 읽히지만 현실적 요인이 더 크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현실 정치, 이른바 여의도문법에 대한 학습이 덜 된 상황에서 토론회에 참여했다가 경쟁자들의 집중 공세 속에서 준비부족을 노출하며 자질시비를 불러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토론회에 불참하면 전통과 질서를 중시하는 당원들과 보수 지지층에서 "오만하다", "비겁하다"는 여론이 불거질 수 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토론회 참석 여부에 대해 "당에서 공식 요청이 오고 캠프에서 이야기가 있으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도부의 요청과 캠프 내부 합의를 거른다는 점에서 메시지가 분명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다른 경쟁 주자들은 벌써 윤 전 총장의 이런 '딜레마'를 파고들며 일제히 토론회 참석 의사를 밝히고 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 캠프 상황실장인 김영우 전 의원은 11일 YTN 라디오에서 "(경준위가) 신중을 기했더라면 좋았겠다"면서도 참석 여부에 대해서는 "고려중"이라며 가능성을 열었다.

앞서 경준위가 추진한 경선 후보 봉사활동, 간담회 등에는 개인 휴가 등을 이유로 불참했던 홍준표 의원도 토론회에는 참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원희룡 전 제주지사 측도 통화에서 "약법도 법이니까 참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승민 전 의원 측은 아예 "우리는 정책 선거, 실력 투표를 위한 당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라며 토론회 참여를 독려하고 나섰다.

토론회를 계기로 이준석 대표와 지도부 사이에도 전선이 형성됐다.

이 대표는 경준위 주도 토론회 진행이 '월권'일 수 있다는 지적을 일축하고 토론회를 밀어붙이면 서 윤 전 총장을 향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연합뉴스



발언하는 윤석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예비후보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 큰 국민의힘 재선의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결단의 시간 다가오는 안철수, 막판 단일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과의 합당 여부를 놓고 마지막 속고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는 11일 유튜브 방송에서 "안 대표가 이번 주에 국민에게 합당과 관련된 입장을 말씀드릴 것 같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국민의힘과 합당할지, 아니면 현재의 제3지대에서 대권 도전에 나설지를 두고 고심을 이어가는 것으로 보인다.

일단 전날 국민의힘의 대선 경선 일정 확정됨에 따라 안 대표가 합당 뜻을 접고 독자 행보를 선택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더구나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제3지대 신당 창당 의사를 밝히면서 김 전 총리 등 중도 세력과 손잡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결국에 가선 국민의힘 후보와 제3지대 후보가 야권 후보 단일화를 시도하는 스킴이다. 4·7 보궐선거 때와 같은 '토너먼트식 단일화'다.

국민에 빠진 안 대표를 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선 입당 시 경선에서 승산이 없다는 판단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입당 대신 중도 확장을 모색하다가 여야 박빙 구도에서 야권 단일화 카드를 내미는 것이 현실적으로 최적의 선택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여론조사 흐름을 보면 후보를 4명으로 압축하는 '2차 컷오프' 통과조차 쉽지 않아 보인다.

지난 9일 발표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에서 안 대표의 차기 대권 지지율은 2.5%에 그쳤다.

국민의힘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28.3%)이나 최재형 전 감사원장(6.1%), 홍준표 의원(4.2%), 유승민 전 의원(3.5%)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연합뉴스

장성 토지 (매매 분양)	상가매매 (상무지구)
광주에서 20분(6M도로접) 장성댐 (호) 2분, 장성 IC. 5분 토지평수 (150, 200, 500, 1800) 전원주택, 창고, 투자적합 010-6670-9800	1) 감정가(시세) 9억 매매가 6억 3천 (용 4억) 2) 월수익 300만 (보4천) 3) 평수 140평, (전용 100평) ● 6층 평수 80평 매가4억5천(용 2억6천) ● 7층 평수 60평 매가 2억 3천 (용 9천) (사무실 리모델링, 배, 유출, 모든업종가능 즉시입주 시비없음) 010-6670-9800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tag 전국100개 인증업체선정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광주전남 기능장 1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특수가발 별매 (원터치) 테일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시술. 1만명 이상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H.M사
 등급제품 **130만원**
59만원~

광주 남구 주월동 1199-12 라인가든아파트 상가 2층(대광여고 옆)
062.673.5858 (모발모발)